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어제 기준, 방류 관련 데이터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0~200 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8~5.2cps, 이송펌프에서 4.8~5.8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996~15,301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99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8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76건(금년 누적, 6,47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꽃게 9건, 멸치 6건, 살오징어 5건, 전어 4건, 고등어 4건 등

○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80건(금년 누적, 3,92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꽃게 1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위판장 갈치 1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72건을 선정하였고, 1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1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데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2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금년 누적, 3,43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정부는 방류 이후 가까운 바다의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 25개 지점, 먼 바다 9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 어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 134는 리터당 0.073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0.073~<0.085 Bq/L), 세슘 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0.064~<0.086 Bq/L), 삼중수소는 리터당 7.1베크렐 미만에서 7.4베크렐 미만(<7.1~<7.4 Bq/L)의 범위로 도출되어,
-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개별 설명사항 >

- 오늘은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① 총괄 설명

-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지 않았던 올해(2023년)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21.4월)한 직후 편성한 2022년 본예산(3,042억원)보다 약 1.8배 가량 확대한 5,281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중이고,
- 오염수 방류가 확정된 이후인 내년(2024년)에는 2022년 대비 관련 예산을 약 2.5배 가량 대폭 확대하여 7,3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해역 및 수산물 안전관리

□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올해 이미 국내해역 조사 정점을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여 조사 중이며, 내년부터는 정점을 243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우리 해역 바깥의 조사 정점도,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을 추가한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대폭 강화합니다.

- 올해도 정부·지자체 직접 검사는 1만 9천건과 별도로 민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9천건을 포함하여 2만 8천건 수준으로 지난해(1.6만건)보다 1.8배 늘어난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내년에는 방사능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정부·지자체 검사 3.0만 건, 민간 모니터링 2.5만 건 등 총 5.5만건 수준으로 올해보다도 2배 가량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③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수매·비축 지원

- 먼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히 지원 중이며,
-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소비활성화에 총 1,3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소비활성화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수매·비축 예산 2,904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3,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④ 수산업계 경영 지원

- 마지막으로,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 우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천억원에서 내년 4조 1천억원으로 약 7,000억원 가량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합니다.
-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력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브리퍼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식품소비안전국장 -

< 1. 인사말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입니다.

< 2.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행사의 취지

○ 식약처는 방사능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체험 행사 개요

○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하여 9월 2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총 13번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체험 기관으로는 서울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가 인정한 식품 검사기관 (4개)** 포함 총 11곳입니다.

*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방식약청

** ▲경기(3): ①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②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③한국에스지에스(주)
▲광주(1): ④알엠택(주)

- 참여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및 군부대의 급식 담당자, 맘카페 회원 등 약 260여명이며, 차수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 체험 프로그램은 방사능 안전관리 체제 교육과 검사 현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먼저, 방사능의 개념과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영상물을 시청하고,

- 이후 검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검체 분쇄 등의 전처리 과정,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과정,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 현재까지 경기, 광주 지역의 영양사, 대학생과 군부대 급식 담당자 등 109명이 6회에 걸쳐 현장 체험을 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3. 마무리 말씀 >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